

# 소방관 안전 위해 화재현장 속 '눈과 귀' 선물

# 학종 이해도 부족한 교육부



소방의 날 맞아 전국 소방서에 열화상카메라·통신장비 기부

삼성전자가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에 고성능 눈과 귀를 선물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9일 열화상카메라와 재난현장 통신 장비를 각 1000대씩 전국 소방서에 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열화상카메라는 열을 감지해 이미지로 보여주는 장비다. 짙은 연기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는 안전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대피 시기를 확인하는데 필수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열화상 카메라는 2016년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에서 대상



소방관들이 세종시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직접 장비를 체험해 보고 있다. /삼성전자

받은 아이디어를 적용한 제품으로, 가볍고 조작성이 쉬우면서 가격도 저렴하다.

삼성전자는 2017년 개발을 마무리하고 전국 소방서에 1000대를 기부했으며, 2년간 현장 사용 데이터를 축적해 화면을 키우고 배터리 용량을 늘려 성능을 더욱 높였다. 지

난 4월에는 베트남 소방청에 300대를 전달 기도 했다.

재난현장 통신장비도 소음이 심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뼈 진동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골전도 방식을 채택했으며, 블루투스 무선으로 연결돼 활용도도 높였다.

통신장비 역시 마찬가지로 2018년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에서 대상 받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제품이다. 개발 과정에서 소방 현장 테스트와 현지 소방관 600여명에 의견을 취합해 실용성을 제고했다.

이번 기부를 이끌어낸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은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에 삼성전자 기술력을 더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기지 수집

한 용 수 (정책사회부)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개 주요 대학들의 학종 합격자를 보니, 외고와 과학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정 유형의 고교 출신자들의 학생부 성적이 일반고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았다는 내용이다. 이런 결과를 교육부는 대학들이 특정 유형 고교 출신들에게 특혜를 준 정황으로 지목하고, 고교 서열화를 확인했다고 했다.

학교마다 학생들 학력수준이 다르다는 건 대다수 국민들이 아는 사실이다. 대학들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모든 학생부 등급을 똑같이 뽑았을리 만무하다. 이걸 교육부가 자료를 분석하고서 확인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학종은 학생부 교과외 정량적 등급만 보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다르다. 10여년 전 태생부터 공정성이나 신뢰도 확보가 제도 성패의 키였던 지금의 학종은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대학교육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대학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고교교사 대다수도 2015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적합한 전형으로 학종을 꼽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이런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과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종의 비교과 평가 항목을 대거 축소·폐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걸 우려한 대학들은 정시 수능 전형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수능으로 줄세워 뽑는 걸 막기 위해 10여년간 다듬어온 학종을 줄이고 다시 수능으로 되돌리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가 할 일은 실태조사를 통해 학종 전형 과정에서 입시 부정이 일어났는지, 입학 특혜를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일로 충분하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이 2025학년도 이후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는 연구에서 교육부와 정지권을 배제하자고 제안한 이유가 이번 학종 실태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됐다. /hys@metroseoul.co.kr

## LGU+, 고려대와 5G 네트워크 보안 '맞손'

LG유플러스는 5G 네트워크 보안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5G 보안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해킹 대응, 디지털 포렌식, 정보보안 등 사이버보안 연구성과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고려대는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성 평가 ▲보안 취약성 진단 ▲미래 보안기

술 연구 등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5G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취약점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단독모드(SA) 기반의 신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스마트카·스마트팩토리 등 5G 신규 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 기술도 연구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6일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LG유플러스 김기웅 정보보호담당(왼쪽)과 고려대학교 이상진 정보보호대학원장이 '5G 보안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오늘의 운세 11월 7일 (음 10월 11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원숭이띠를 조심. 48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기를 기대하니 욕심이 과하다. 60년생 상급한 소식이 친구를 통해 온다. 72년생 작은 실수가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 주의. 84년생 하늘에서 보석비가 쏟아져 내린다.
- 소** 37년생 가족 간에 공과 사를 다툰 일 있다. 49년생 뜻밖의 선물이 들어온다. 61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편안히 휴식. 73년생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하루. 85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속도는 별로.
- 호랑이** 38년생 모난 돌이 정 맞으니 오늘은 자중. 50년생 어린 사람과 다툰이 생기니 주의. 62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74년생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뛰는 일을 찾아라. 86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과소비를 조심.
- 토끼** 39년생 기회가 없음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 51년생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63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모든 것은 문서로. 75년생 음주는 결정적으로 파탄을 가져온다. 87년생 집안에 기쁜 일이 생긴다.
- 말** 40년생 눈앞의 실속 챙기려다 큰 것을 놓친다. 52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라. 64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지 마라. 76년생 배움은 언제든 늦다. 88년생 약간의 먹구름 뿐 폭풍은 오지 않는다.
- 뱀** 41년생 불만을 내색하면 서로 불편하다. 53년생 자나간 일에 관심두지 마라. 65년생 뜻대로 되는 자식은 별로 없다. 77년생 지치고 힘든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을 받자. 89년생 희망이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으니 열심히 노력.

- 말** 42년생 마음이 상하고 몸도 힘들다. 54년생 지치고 힘들 때 가족을 생각하라. 66년생 사람이 찾아오니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다. 78년생 투기와 투자를 제대로 구분하여야 한다. 90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날.
- 양** 43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55년생 흐르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좋다. 67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생긴다. 79년생 태양은 항상 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91년생 병이 왔으나 곧 악도 주어진다.
- 원숭이** 44년생 헛된 꿈이 머리를 어지럽힌다. 56년생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68년생 후배에게 하는 칭찬은 큰 성과로 돌아온다. 80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다음 아닌 당신 자신. 92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 닭** 45년생 구두쇠는 구두쇠지 절약정신이 아니다. 57년생 붉은 색 옷이 행운을 준다. 69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81년생 평소 해놓은 공부로 창의력이 빛나는 날. 93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많이 모이는 법.
- 개** 46년생 시시비비 가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진다. 58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 없다. 70년생 목표가 높아 보여도 용기를 내자. 82년생 지는 태양을 막을 도리가 없다. 94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최선을 다해 노력.
- 돼지** 47년생 허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진다. 59년생 헛된 희망이 사람을 지지하게 한다. 71년생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83년생 사람을 믿는 것도 자산이다. 95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 김상희의四季

직업 바꾼 유학파의 길은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 요가강사로 이름을 굳힌 30대 중반의 여성이 상담을 왔다. 강의 요청을 받고 한 달 일정으로 한국에 왔는데 주변 사람이 추천해줘서 필자를 찾아 왔다고 한다. 팔자 구성을 보니 오행을 고루 갖춘 편안한 사주를 타고났다. 더구나 천을귀인이 조상 자리에 뿌리 있고 재성도 발달해서 누가 봐도 부러운 사주다. 그렇다고 고생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취업했을 때는 앞길에 성공 가도가 펼쳐졌다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연봉도 높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다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에 회의가 들었다. 휴직을 선택하고 쉬다가 배운 것이 요가였다. 요가를 배우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꼈고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문과정을 배우고 요가센터를 열었는데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팔자에 충실이 없고 흉살이 없는 사주면 어떤 일을 진행해도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 지금 벌여놓은 요가센터는 사람들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좋고 앞으로 펼쳐질 대운도 좋은 방향으로 뻗어가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을 확장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인 것이다. 좋은 운세가 흐를 때는 그 운을 놓치지 않는다. 사업 확장을 고민하던 때에 한국을 찾게 됐고 때맞춰 필자를 찾아 상담을 받게 되어 운이 솟아나는 시기를 잘 맞추게 된 것이다. 교육이나 문화 쪽에서 일해야 뻗어가는 팔자인데 광고에서 요가센터로 전업한 것부터 행운이라고 할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운세에서 바랄 게 없는 형국이다. 이제 확장하는 요가센터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만 고민하면 될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3					2
2			1	9	4			3
	6			7				1
		6				1		
5			1					7
	4		5		7			8
		4		2		8		
7								6
	9		6	4	3			2

						7		
	1	2	3			9		
4		9		8			1	6
	7		8		4			6
		8		2		5		
			3	7		6	4	
9	8				7			6
1	2					5		
		7	6	4				2

스도쿠 정답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5	6	8	1	2	3	4	5	6
6	8	2	9	5	1	7	4	3
2	4	9	6	1	7	8	3	5
7	5	1	8	9	4	6	2	3
8	1	6	5	2	3	7	9	4
3	9	5	7	6	1	2	8	4
4	3	7	9	8	6	5	1	2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31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21호